

# 1920년대 일본 신여성의 서양복 수용 고찰

이행화\*  
mua-winter@hanmail.net

이경규\*\*  
lk5120@deu.ac.kr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3 짧은 헤어스타일과 모자 |
| 2. 이론적 배경        | 3.4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  |
| 2.1 사회문화적 배경     | 4. 신여성의 서양복 수용형태 |
| 2.2 신여성의 개념      | 4.1 의복           |
| 3. 1920년대 패션의 특징 | 4.2 두발형태         |
| 3.1 직선형 실루엣      | 4.3 화장           |
| 3.2 기능적인 색채와 문양  | 5. 나오며           |

主題語: 플라퍼(flapper), 신여성(The modern woman), 스트레이트 실루엣(Straight silhouette), 모던(Mordenity), 유행(Fashion)

## 1. 들어가며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인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양풍과 일본풍 사이에서 양자의 선택이 아니라 서양풍 중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일부를 선택해 종래의 것에 절충시켜 새로운 형태의 일본풍을 창출해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문명개화가 강조되어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계 여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평등의 새로운 여성관을 심어주었으며 전통 여성과는 다른 개념의 신여성(新女性)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신여성들은 당시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부상하며 사회적인 관심이 되었고, 이들 복식은 여성들이 유행을 주도해 나갔으며 일반 서민복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김미영<sup>1)</sup>의 신여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신여성이란 용어는 1886년 창간된 『일본신부인(日本新婦人)』의 표지에서 비롯되었다. 신부인(新婦人)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에서 소개되었던 신여성(new woman)을 적절한 어휘로 번역하였던 것이다. 이 잡지의 사실에 의하면 신부인이란 메이지시대(明治時代)의 새로운 지식을 구비하고 문명의 신학예(新學藝)에 통달한 부인들로 재산상에 큰 이익을 주고 세태인정에 명민한 여성들을 지칭한다고 한다.

1910년대를 거쳐 1920년대로 접어들게 되면 이전시대의 지식인층으로 특권계급에 속했던 신여성의 개념과는 달리 대중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로 모던 걸이 사용되었는데, 모던 걸은 기타자와 히데카즈(北澤秀一)가 1924년 『여성(女性)』에서 처음 언급하였고, 1926년부터 대중화되었다.

1920년대 신여성의 패션은 미국의 신여성인 플래퍼의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자본주의의 발달 단계에 있었고, 이 시기에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과감한 모습의 플래퍼가 등장하였다. 이들의 모습은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층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에게 확산되었고 이러한 모습은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도 전파되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계층은 신여성들이었다.

본 연구는 1920년대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당시 미국의 근대화를 배경으로 나타난 플래퍼 스타일을 분석하여, 일본 신여성의 패션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아 서양복을 수용했는지 고찰해 보는 것이다. 신여성들은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서구적 외양을 추구하였고 이를 그들만의 패션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신여성의 패션이 갖는 의미는 근대화로 압축할 수 있고, 복식사 연구에 있어 이와 같은 과도기적 변화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사회문화적 배경

1920년대 미국은 향상된 자본주의 발달 단계에 있었으며 바로 이 시기 당시로는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과감한 스타일의 플래퍼가 등장했다.

1) 김미영(2003)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 : ‘신여성’의 주체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p.86

1차 대전 이후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가치관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기대의 상실로 관심을 물질적인 것으로 돌렸고,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번영과 맞물려 소비문화의 확산이라는 현상을 낳게 되었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화시켰다. 이는 당시에 등장한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정신과 결합하여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모더니즘은 문화적 전통의 거부와 새로운 것의 창조를 의미하며, 1920년대 전반에 걸쳐 일어난 운동이다. 즉, 전통과 인습을 타파한 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은 각 분야에서 일어났는데 패션도 예외는 아니었다.<sup>2)</sup> 패션의 경우 모더니즘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부분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코르셋으로 조아 몸을 속박했던 전통적인 의복으로부터 여성의 몸이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남편이 전쟁에 참가했던 많은 여성들은 독립적으로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더 많은 여성들이 사무실과 공장으로 진출했다. 사무직 여성의 고용은 짧은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전쟁 이후 여성들이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이 플레퍼 스타일이다.

플레퍼는 영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미성숙한 말괄량이 소녀를 지칭하는 말로 아직 성숙하고 고상한 여성성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이 입은 특정한 스타일 역시 신체적인 미성숙함을 가리기 위해 디자인 된 것으로 일직선 형의 옷이었다.<sup>3)</sup>

1920년대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경제적 호황을 누렸으며 구미 열강들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섬유제품과 군수물자를 수출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1923년 관동대지진에 의해 일본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당시 보급된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경향도 나타났다. 차별받는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의 시기였으며 근대화에 대한 지나친 추종을 반성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제1차 대전 이후의 일본은 모보(morden boy), 모거(morden girl), 그로(grotesque)와 같은 신조어가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는 전쟁 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당시 구미의 시대 사조였던 모더니즘이 일본 사회로 침투되어 사회 한쪽에서 모던을 통한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면서도 이면에는 국제사회를 향한 자국의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였다.<sup>4)</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 일본여성의 패션에서도 구미의 모더니즘을 배경으로 한 플레퍼 스타일은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의 신여성의 서양복 수용의 양상은 메이지 시대 로쿠메이칸

2) 정현숙(2004) 「1920년대와 1960년대 패션에 나타난 유사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12권 제2호, p.29

3) 박현숙(2007) 「미국 신여성(플레퍼)의 재현 양상과 소비자본주의」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p.109

4) 유정이(2007) 「한국과 일본의 신여성복식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p.14

(鹿鳴館) 양식에서 그러했듯이, 일본여성의 몸에 맞춘 스타일이 아닌 서양 여성의 체형에 맞게 만들어진 것을 수용하였으므로, 여전히 부자연스러움은 나타났다.

## 2.2 일본의 신여성의 개념

일본의 신여성이란 용어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1886년 발행된 『日本新婦人』에서의 ‘신부인(新婦人)’,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가 사용한 ‘신여성(新女性)’이란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1911년 창간된 일본 최초 여성문예잡지 『세이토(靑鞆)』<sup>5)</sup>를 창간으로 ‘신여성’이란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세이토』라는 잡지명은 blue stocking의 번역어로서 이 잡지를 중심으로 히라스카 라이초(平塚雷鳥) 등의 여성이 연애의 자유, 남녀평등, 성차별 철폐 등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메이지 유신의 물결을 타고, 서구의 여성사상과 그에 관련한 서구적 여성을 따라 하고자 한, 일본의 ‘신여성’<sup>6)</sup> 혹은 ‘모던걸(Modern Girl)’<sup>7)</sup>의 출현이다.

1920년대 신여성의 개념은 대중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단어로 모던 걸이 사용되었다. 모던걸은 기타자와 히데카즈가 1924년 『女性』에서 처음 언급하였고, 1926년 대중화되었다. 기타자와는 신여성이 부인해방과 여권신장의 역사와 연관성이 있다면 모던 걸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활동 시간의 증가를 배경으로 나타나 이전의 신여성과는 달리 대중적인 경향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여성과 모던걸 모두 전통사회에서 현모양처 역할만을 강요당했던 구여성(舊女性)들과는 다른 여성상으로 등장하였다.<sup>8)</sup>

신여성과 모던 걸은 모두 전통적인 사회에서 현모양처 역할만을 강요당하던 여성들과는 다른 여성상으로 등장하여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헌신하며, 가정 내에서만 생활하던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를 바탕으로 직업을 갖고 사회로 진출하면서 남성들로부터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접받길 희망하였다.

5) 『세이토,靑鞆』: 일본 최초의 여성잡지로서, 1911년 창간되어 남녀 평등과 성의 자유를 부르짖었으나 시대를 앞서간 탓인지 악의에 찬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여 결국 1916년 6월에 폐간되었다. ‘세이토’라는 이름은 18세기 런던의 귀족 몽메뉴 부인의 살롱에 모여 남녀평등을 논하던 여성들이 파란색 스타킹을 신었던 것에서 연유하는데, 상식을 깨는 여자라는 조롱적 의미로 쓰였던 표현을 일본 여성 문인들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6) 일본의 여성운동이 활발하던 1910년 대라는 특정한 시기에 활동한 여성들을 지칭하는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용어. ‘자각한 여성’이란 표현으로 쓰였다.

7) 신여성의 영어식 표현이긴 하나, ‘신여성’이란 용어와 달리 여성권에 대한 의지나 페미니즘적 이상도 갖지 않은 서구적으로 변화한 즉, 전통사상에서 벗어난 여성을 가리킨다. 이는 대중적으로 통용되며 근대 전반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일본의 잡지 [여성]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8) 앞의 논문, 유정이(2007) 「한국과 일본의 신여성복식 비교연구」, p.5

다시 말해 신여성이란 단지 근대적 교육을 받은 부르조아 여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문자 해독 능력을 갖춘 노동계급 여성에서부터 기생이나 창기까지 여러 유형의 여성들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세가와시구레(長谷川時雨)는 『明治大正美女追憶(1927)』에서 다음과 같이 모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최근 3, 5년 모던이라는 말의 유행은 모든 것을 풍미했는데, 특히 미녀의 외모와 마음에 나타난 모던의 양상은 엄청난 기세였다. 미녀에 대한 평가가 전복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오늘날의 모던걸은 아직 조금도 다듬어져 있지 않다. 강렬한 자극에는 아직 미숙하고 예술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 언제나 유행은 그런 것이라고 말하면 그 뿐이겠지만 유행은 데파트먼트의 색채이며 그녀들의 요란한 데코레이션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중략)

여성의 가슴에 불타고 있는 자유사상은 화장·복장·장식이라는 방면의 전통을 차 내어버리고, 외형적인 파괴와 해방은 선언해 정돈되지 않은 복잡, 완성되지 않은 변화, 뒤죽박죽한 혼란이라고 말하고 있다.<sup>9)</sup>

유행풍속의 모던걸은 미숙하고 예술적이지 않고 데파트먼트의 색채라고 하는 데코레이션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더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용기 있는 삶을 사는 여성미가 모던걸의 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 하다.

### 3. 1920년대 복식의 특징

#### 3.1 스트레이트 실루엣

1920년대 구미 패션 변화의 일부는 여성의 의식변화의 영향을 받았다. 전쟁 기간 중에 직업여성의 수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전쟁 후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국에서는 플래퍼라는 젊은 여성의 대명사가 생겨났다. 이들은 자유연애를 즐기고 활동적인 것을 추구하여 보이시 스타일의

9) 최은주 역(2004) 『日本生活文化史』어문학사, pp.220-221

복장을 하였다.<sup>10)</sup>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그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새롭게 얻은 자신감과 신체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의복을 필요로 하였다. 더 이상 여성의 아름다움이 곡선미에 의존하지 않고 길고 호리호리한 신체가 아름답게 여려져 가느다란 힙과 납작한 가슴, 작은 머리와 긴 다리를 갖고 싶어하였다.<sup>11)</sup>

20년대 보이시 스타일의 기본 실루엣은 몸의 곡선을 나타내지 않는 직선 실루엣 <그림 1>에 로우 웨이스트이고, 옷 길이가 무릎까지 올라간 남성적인 스타일이었다. <그림 2> 소년다움이 여성들의 열망이 되어 당시 신여성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짧고 직선적인 드레스를 입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자신감을 과시했으므로 젊음에 대한 숭배가 1920년대 패션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광란의 20년대, 재즈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20년대를 연상하는 이미지는 발랄한 젊은이들, 플래퍼에 의해 구현되는 젊음의 원기 왕성함과 쾌락주의의 이미지이다. 20년대의 인기 신문과 잡지들은 발랄한 젊은이들의 방탕과 일탈을 다루며 즐거워했으며, 중년과 중산계급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극소수이며 부유한 계층의 구성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의 문화는 급속도로 확산되어갔다.<sup>12)</sup>



<그림 1> 스트레이트 실루엣



<그림 2> 1920년대 보이시 스타일

이들 패션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영화산업과 재즈 음악의 보급이었다. 젊은 여성들은 자기 좋아하는 배우와 닮고 싶어 하였으므로 유명배우의 의상과 헤어스타일은 복식의 유행을 주도하였다.

젊은이들이 재즈의 유행과 함께 댄스파티를 즐기면서 복장이 춤의 리듬에 어울리도록 만들

10) 신상옥(2010) 『서양복식사』수학사, p.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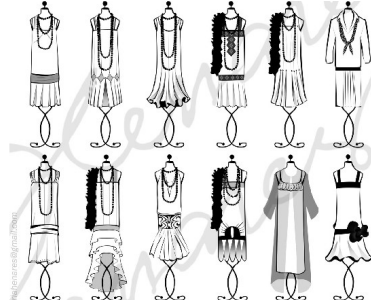
11) Gartrud Lehnert(2000), 『A history of Fashion』Konemann), p.21

12) 엘리자베스 주르 저·이재한 역(2003) 『코르셋에서 핑크까지』시지락, p.219

어졌는데, 로우 웨이스트의 직선형 실루엣에 주름이나 리본, 짧게 너풀거리는 스커트, 스커트 단에 페널 처리를 하는 등 다소 남성적인 스타일이었다. <그림 3><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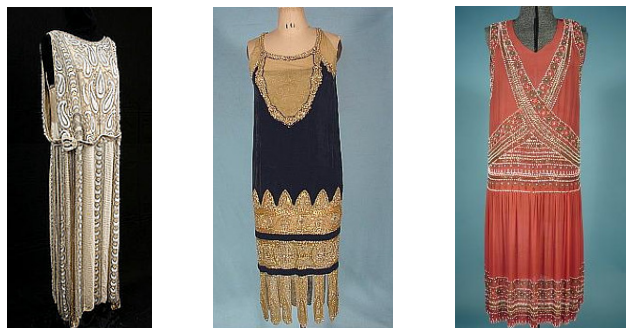
<그림 3> 플레퍼 스타일의 여성들



<그림 4> 다양한 원피스 도식

### 3.2 기능적인 색채와 문양

1920년대 패션에 있어 색채는 예술양식과 연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 신조형주의 화가인 몬드리안이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용한 것이나 야수파의 강렬한 원색의 사용, 입체파의 표현기법 등이 복식에 영향을 주었다. 직물문양에는 자연을 주제로 한 것이 많았고 색채에 있어서도 혁신을 일으켰다. 또한 잎사귀, 꽃, 줄무늬, 삼각형, 사각형 등을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모티브로 이용하여 디자인하였다.



<그림 5> 모던한 색채와 문양의 원피스

<그림 5>의 원피스는 1920년대 중반 원피스로, 사선과 직선을 이용하여 면을 나누어 기하학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원색의 색채사용과 진주 목걸이의 효과를 낸 문양표현이 눈에

된다. 이는 경쾌한 재즈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때 보다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 3.3. 짧은 헤어스타일과 모자

전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여성들은 남성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서 남성과 유사한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하는 것을 남녀평등으로 여겼다. 따라서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점차 단순화되면서 짧은 쇼트 헤어가 인기를 얻었다. 짧은 헤어스타일은 보브 스타일과 유행을 같이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짧고 남자의 머리형과 같은 컷으로 소년 같은 느낌이 드는 형태이다.<sup>13)</sup>

아이렌 케슬(Irene Castle)<sup>14)</sup>이 뉴욕에서 1차 대전 전에 짧은 머리모양을 선보였고, 이사도라 던컨이 춤을 출 때 짧은 스커트에 짧은 머리를 한 것이 유행의 시작이었으며 전시 패션이 없어진 후에도 계속 유행하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짧은 머리가 아닌 20대 여성이 없을 정도였으며 30, 40대 여성 사이에도 짧은 머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sup>15)</sup>

모자는 클로쉐 햇(Cloche hat)을 썼는데, 머리통에 꼭 맞고 눈썹까지 내려 덮이게 쓰는 형태로 전쟁 중 철모의 형태를 응용한 모자이다. 주로 버섯형, 종형의 모양에 베이지색이나 검정색 펠트직물로 만들었고, 거울용 모자에는 타고 깃털장식을 하기도 했다.



<그림 6> 1920년대 헤어스타일



<그림 7> 클로쉐햇

13) 김희숙(2006)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에 나타난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한국인체예술학회지』 제7권 제3호, p.312

14) 1920년대 재즈의 이러한 즉흥성은 당시 자유를 갈망하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춤에 대한 이같은 광기로 태어나 스타가 이레네 케슬(Irene Castle:1893-1969)과 남편인 Vernon Blythe Castle 로 이루어진 댄스 팀이었다. 케슬은 케슬보브(Castle bob)라는 짧은 헤어스타일과 진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가는 Head-band로써 패션리더가 되었으며, 재즈의 유행은 복식의 변화를 초래했는데, 춤을 추기 위해 짧은 스커트와 운동감을 위해 장식용 드레이프와 여러 줄의 긴 목걸이를 착용하게 되었다.

15) 박현숙(2007) 「미국 신여성(플래퍼)의 재현 양상과 소비자본주의」『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p.112



### 3.4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

192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부도덕하게 생각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화장품을 사용하였으며, 중년의 여성들도 아름다워지기 위해 화장품 사용에 적극적이었다.

플래퍼 스타일 의복으로 인해 하얀 얼굴 위에 어린아이처럼 커다란 눈과 작고 귀여운 입술 모양으로 천진난만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베이비룩 메이크업이 나타났으며 여성해방운동과 자유연예사상 등 활동적이고 쾌락적인 가치관의 확립으로 여성 메이크업의 색조와 스타일이 대담해졌다.

여성들은 얼굴에 파우더를 바르고 눈가에 검정색 라인을 그렸으며 눈꺼풀에도 음영을 주어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유행하게 되었다.<sup>16)</sup>



<그림 8> 깊은 눈과 작은 입술을 강조한 1920년대 메이크업

## 4. 신여성의 서양복 수용 형태

### 4.1 의복 스타일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여성들은 구미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나와 공적인 영역

16) 앞의 논문, 김희숙(2006)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에 나타난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p.312

으로 진출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한 근대적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신여성들은 메이지기의 S자형 실루엣이 여전히 보여지나 웨이스트라인이 조금 올라간 스타일이었다.

1920년대 말부터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서양복을 근무복으로 지정하였고, 서양 영화의 보급과 여배우들의 영향으로 서양복의 일반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미국 여성들이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나타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의복은 20년대 일본의 신여성들에게도 반영되어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표현을 강조하고, 기능성과 합리성을 중시한 의상이 전개되어 의복에 모던스타일이 정착하게 되었다.<sup>17)</sup>

단발에 양장을 한 모거(modern girl)나 모보(modern boy)가 도쿄의 긴자 주변을 활보해 화제가 되었는데, 이전처럼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지 않고 로우웨이스트의 넉넉한 형태를 한 원피스 형태로 비교적 입기 쉬운 형태가 되어 있었다.<sup>18)</sup>



<그림 9> 모던걸(現代漫畫大觀) <그림 10> 모던걸과 모던보이(現代漫畫大觀)

<그림 9>는 전통적인 여성과 당시 유행 풍속인 모던걸의 모습을 풍자한 것으로 단발을 한 머리에 클로쉐를 쓰고,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튜브형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다. 여성의 표정을 통해 신여성의 자신감이 드러나고 있다. <그림 10>은 어깨를 펴고 걷고 있는 모던걸의 스타일과 앞으로 숙이며 걷고 있는 부인의 스타일을 대조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일반 여성의 복장이 양장화 되는 계기가 된 것은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활동성이 높은 의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외국에서 직수입된 양장과 일본에 거주하는

17) 유정미(2007) 「한국과 일본의 신여성복식 비교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5-66

18) 앞의 책, 최은주 역(2004) 『日本生活文化史』, p.136

외국인들에 의해서였다.

당시 등장한 모던걸은 유행 패션인 플래퍼 스타일을 몸에 감고 활발하고 시원시원한 동작, 남자 같은 말투를 가진 여성들이었다.<sup>19)</sup> 모던걸은 단발을 하고 양장차림으로 대도시의 근대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으로 비추졌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화현상 이면에는 신문이나 잡지, 영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구미의 모던걸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모던걸은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소비와 향락, 퇴폐와 연관시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림 11> 신문에 나타난 모던걸

<그림 11>는 다이쇼 15년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의 부분이다.

모던한 여성의 패션이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신선한 패션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 ポラ文化研究所(2004) 『幕末維新 明治・大正 美人帖』新人物往來社, p.169



<그림 12> 양산과 혈을 신은 신여성(1924)

1920년 말의 플래퍼 스타일은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짧아지기 시작한 스커트와 편안하고 넉넉한 상의, 보이시한 단발로 표현할 수 있다.<그림 12> 심플한 라운드 넥라인과 V넥라인에 슬리브리스 또는 반소매 원피스가 유행하였다.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스타킹과 구두는 또 하나의 유행 품목으로 등장했다.

## 4.2 두발형태

일본 신여성의 헤어스타일은 메이지 유신 이후 등장한 양장 착용에 어울리는 두발형태를 고안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나타난 헤어스타일 중 속발(束髮)은 더 이상 신여성들만의 모드는 아니었고, 소쿠하츠의 불편함도 지적되면서 두발형태는 보다 진보된 형태로 변화하였다. 다이쇼기 신여성들 사이에서는 아이론을 이용한 웨이브 형태의 단발머리, 미미가쿠시(耳隠), 미미다시(耳出), 히사시가미 등 기모노와 양장에 어울리는 두발 형태가 유행하였다.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여성상을 만들게 되며 신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가정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의복에서 서양화된 의복으로 변모함에 따라 두발형태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sup>20)</sup>

미미가쿠시는 인두로 이마에 웨이브를 넣어 귀를 가리고 목덜미에서 모은 형으로 옆으로 쓰러뜨려 S자 모양으로 묶은 것이다. 이는 이후 귀를 가리지 않는 미미다시의 형태로 변화하게

20) 김지연(2010) 「日本女性の頭髮樣式 및 裝身具에 관한 연구-다이쇼시대(大正時代)를 중심으로-」 『한국인 체미용예술학회지』 제11권 제3호, p.102

되었다.

<그림 13>의 왼쪽은 카테이푸드의 광고포스터이다. 웨이브를 만들어 귀를 덮은 미미가쿠시 스타일을 한 여성의 일러스트가 광고용으로 묘사되어 있다. 오른쪽의 머리는 쇼와기까지 유행한 부인의 미미가쿠시 형태로 양장과 기모노 모두 어울릴 수 있는 머리형태로 보인다.



<그림 13> 미미가쿠시(耳隠)

1921년부터는 유행을 주도해 가는 신여성들 중 단발을 시도하는 여성들이 등장했다. 메이지 시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단발령이 실시되었을 때 여성들 중 문명개화의 머리모양인 단발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단발금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반 여성들에게 단발은 파격적인 스타일로 받아들여졌다. 긴 머리를 짧게 자른다는 것은 많은 일본여성들에게 있어 드문 일로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당시의 단발은 길이가 짧은 스커트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발을 하는 것은 모던걸의 상징이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트렌드를 주도해 가는 일부 여성들에게만 받아들여져 쇼와시대에 들어서 점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또한 여성들을 활동적으로 변화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던 관동대지진 이후 기능적인 의복의 발달과 함께 머리형도 자연스럽게 짧은 형태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미 문화의 유입, 사회의 근대화, 재난과 같은 다양한 시대적 배경은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켰고, 이와 함께 머리형도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일본전통 스타일인 속발(束髮), 양발(洋髮), 단발과 메이지부터 다이쇼에 걸친 두발형태의 변화는 현대 여성들의 꾸밈의식과 유사하며 자신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을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했다.

<그림 14>는 단발을 한 여성의 사진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단발형태의 효과를 내는 단발풍의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고안되기도 하였다. 이는 머리를 함부로 자를 수 없는 일반여성들에게도 보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4> 『婦人画報』

### 4.3 화장

1920년대에는 서구 영화의 보급으로 서양 여배우들처럼 깊은 눈매와 가늘고 진한 눈썹을 표현하여 눈화장을 강조하였으며, 이국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입체적인 윤곽을 표현하기도 했다. 납과 수은이 화장품의 주소재로 이로 인한 피해가 생겼으며, 백색밖에 없었던 백분에 살색, 피부색 등의 색깔이 있는 백분이 만들어져 여성들이 자신의 피부톤에 맞추어 화장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얼굴형에 따라 머리형을 선택할 수 있었던 당시 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새로운 화장법을 광고하는 화장에 관한 책도 출판되어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는 법, 손발톱을 아름답게 꾸미는 법,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미용체조 등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당시 신여성들의 화장은 짙은 눈썹과 뚜렷한 눈매, 작고 붉은 입술표현, 창백한 피부표면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구미 여성의 화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법은 구미 여성들의 얼굴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유행으로, 동양인의 평면적인 얼굴에 이를 적용시켜서 다소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표정으로 표현되었던 것 같다.





<그림 15> 다이쇼 그림엽서

## 5. 나오며

1920년대 신여성의 패션은 미국의 신여성인 플래퍼의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자본주의의 발달 단계에 있었고, 이 시기에 과격적이라고 할 만큼 과감한 모습의 플래퍼가 등장하였다. 이들의 모습은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층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에게 확산되었고 이러한 모습은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도 전파되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계층은 신여성들이었다.

패션의 경우 모더니즘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부분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코르셋으로 조아 몸을 속박했던 전통적인 의복으로부터 여성의 몸이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신여성의 서양복 수용의 양상은 메이지 시대 로쿠메이칸(鹿鳴館) 양식에서 그러했듯이, 일본여성의 몸에 맞춘 스타일이 아닌 서양 여성의 체형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을 수용하였으므로, 여전히 부자연스러움은 나타나기도 하였다.

신여성의 서양복은 보이시 스타일, 플래퍼스타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구의 유행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년대 잡지나 신문,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이러한 유행은 거의 동시대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여성들의 사회진출로 기능성과 활동성이 요구됨에 따라 서양의 기능주의와 결합하여 현대적인 감각의 스타일을 새롭게 창출해냈으므로 알 수 있다.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는 귀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인 미미가쿠시, 귀를 드러내는 스타일인

미미다시가 유행했고, 신여성의 상징인 단발머리의 유행은 논란은 있었지만 이후 웨이브와 접목되어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스타일로 진보해 가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메이크업은 구미 영화산업의 보급으로 유행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신여성들은 이러한 트렌드를 추구하였다. 즉, 이전의 평면적인 화장법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화장을 시도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 【參考文獻】

- 김미영(2003)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 '신여성'의 주체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p.86
- 김지연(2010) 「日本女性の 頭髮樣式 및 裝身具에 관한 연구-다이쇼시대(大正時代)를 중심으로 -」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제11권 제3호, p.102
- 김희숙(2006)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에 나타난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제7권 제3호, p.312
- 박현숙(2007) 「미국 신여성(플래퍼)의 재현 양상과 소비자분주의」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p.109
- 정현숙(2004) 「1920년대와 1960년대 패션에 나타난 유사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12권제2호, p.29
- 신상옥(2010) 『서양복식사』 수확사, p.292
- 엘리자베스 주르 저 · 이재한 역(2003) 『코르셋에서 핑크까지』 시지락, p.219
- 유정이(2007) 「한국과 일본의 신여성복식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p.14
- 최은주 역(2004) 『日本生活文化史』 어문학사, pp.220-221
- Gartrud Lehnert(2000) 『A history of Fashion』 Konemann, p.21
- ポ-ラ文化研究所(2004) 『幕末維新 明治・大正 美人帖』 新人物往來社, p.169
- 石田あゆ(2001) 「大正期婦人雜誌における女性・消費イメージの變遷-『婦人世界』を中心に-」 『京都社會學年報』 第9號
- 金子幸子(1999) 『近代日本の女性像』 社會思想社
- 小池三枝・谷田闕次(1989) 『日本服飾史』 光生館
- 小池三枝・野口ひろみ・吉村佳子(2000) 『概説 日本服飾史』 光生館
- 小池三枝(1991) 『服飾の表情』 勁草書房
- 村田裕子(2004) 「大正期における洋装子供服について-雑誌『主婦之友』より」 『大谷女子短期大学紀要』 (48), pp.31-42
- 平松陸円(2009) 『化粧にみる日本文化』 水曜社
- www.blog.goo.ne.jp/alugamama/c/03771dd3841b0bc621

---

논문투고일 : 2011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1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0일

---



---

◀ 要 旨 ▶

---

### 1920년대 일본 신여성의 서양복 수용 고찰

1920년대 신여성의 패션은 미국의 신여성인 플래퍼의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자본주의의 발달 단계에 있었고, 이 시기에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과감한 모습의 플래퍼가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1920년대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당시 미국의 근대화를 배경으로 나타난 플래퍼 스타일을 분석하여, 일본 신여성의 패션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아 서양복을 수용했는지 고찰해 보는 것이다.

20년대 일본의 신여성의 복식은 플래퍼 스타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서구의 유행을 거의 동시대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는 잡지나 신문,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기능성과 활동성이 요구됨에 따라 서양의 기능주의와 결합하여 현대적인 감각의 스타일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는 귀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인 미미가쿠시(耳隠), 귀를 드러내는 스타일인 미미다시(耳出)가 유행했다. 신여성의 상징인 단발머리의 유행은 논란은 있었지만 이후 웨이브와 접목되어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스타일로 진보해 가는 기초를 마련했다.

메이크업은 구미 영화산업의 보급으로 신여성들은 여배우들의 트렌드를 추구하고었다. 즉, 이전의 평면적인 화장법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화장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 Exploration on the Reception of Western Clothing by Modern Japanese Women in the 1920s

The fashion trend of modern Japanese women in the 1920s has been by and large influenced by that of ‘flappers’, the symbolic icon of then modern American women. During this period capitalism has just embarked on shaping up, which led to the emergence of even newer mode of *flappers* perceived as extremely provocative to those living contemporarily.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way in which the fashion style of Japanese women in this period could receive western style of dress by looking into the overall historical situation in the 1920s coupled with then socio-cultural backdrops and analyzing the ensuing fashion style of *flappers* emergent through the modernization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Flapper style* has made a strong influence on, and been therefore prevalent in, the dressing style of modern Japanese women in the 1920s. This indicates the foolhardy propensity for them to pursue western fashion trend in this period, which must have eventually been highly influenced by mass media such as magazines, newspapers and movies. In parallel with this, it is also indicative that modern fashion style started emerging by coalescing itself with the western functionalism, as women’s entry into society in this period demanded more and more functionality and mobility.

Vis-à-vis hairstyle, two distinctive hairstyles ‘*mimigakushi* (耳隠: covering ears)’ and ‘*mimidasi* (耳出: uncovering ears)’ respectively have surfaced as popular in general amongst those modern Japanese women during this period. Despite controversies brought about by the increase in popularity of *short-cut hairstyle* epitomizing modern women, it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paving the way for the further modernization of its style by being combined with *wave-hairstyle*.

As for make-up style, modern Japanese women tend to have pursued the way of movie actresses wearing make-up in sync with the then popularization of European and American movies. In other words, this tendency indicates that the emergence of less flat and more multi-dimensional make-up style is to a greater extent a noticeable phenomenon.